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도자료

내용문의	이민호 국제협력센터장 ☎ 02-3156-7062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보도시기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2시부터

※ 매수 : 총 6쪽(본문 4쪽, 붙임 2쪽 포함)

AI가 바꾸는 노동시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여성의 일자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UNDP, 「제1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 포럼」 개최
AI 인재 격차 해소부터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축까지 공동 대응 모색

아태지역 전문 AI 직무 여성 비중 5분의 1 수준...여성 인재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
여성집중 직종 생성형 AI 노출 비율 29%, 남성집중 직종 16%..교육·보건·사무직의 직무 변화 주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여성, 일, 그리고 AI: 아시아·태평양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구축”을 주제로 「제1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 정책 연구 전문성과 UNDP의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연계한 첫 공동행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전환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AI 인재 확보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역량과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성의 AI 역량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제는 AI 전환의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살피는 데서 나아가,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여성 인재활용을 위해 무엇을 함께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은 AI 기술의 단순한 이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와 혁신가, 리더로서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 “성별 편향이 반영된 AI와 디지털 폭력은 여성의 참여와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AI의 설계와 활용, 거버넌스 전반에 안전과 공정성, 포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본 포럼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관계자와 정부·기업·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진하 아시아개발은행(ADB) 젠더 전문가는 “디지털 격차 해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 김진하 젠더 전문가는 “AI 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AI 전문직과 기술 분야 고위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라고 설명하며, “여성의 AI 역량 개발을 기업의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 전 세계 AI 전문인력 중 여성 비중 30%(2022년), 아태지역 전문 AI 직무 여성 비중 5분의 1

※ 동남아시아 6개국 상위 50개 기술기업의 여성 비중: 고위직 23%, 기술 분야 고위직 8%

- 이에 ▲ 산업 수요에 맞춘 AI 교육·훈련 ▲ 유급 실무경험과 취업·승진 연계 ▲ 유연한 교육시간 및 돌봄 지원 ▲ 기술 분야 여성 리더십 확대 등을 제안하며, 여성의 AI 역량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생산성 향상, 혁신, 새로운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 직업별 AI 노출과 도입을 결합한 여성고용 취약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 박수범 연구위원은 “국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노출되는 직종의 비율은 여성집중 직종 29%, 남성집중 직종 16%로 나타나 여성집중 직종에서 AI 관련 업무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특히 AI 노출이 높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대체와 보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직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 84개국 직종별 생성형 AI 노출 비교: 여성집중 직종 29%, 남성집중 직종 16%

※ 고노출 직종(노출 단계 3~4) 비율: 여성집중 직종 16%, 남성집중 직종 3%

- 국내 직업별 분석에서는 AI 노출도와 실제 도입 환경만 고려할 경우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도입 충격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고용 규모를 함께 반영하면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고용 취약성(AI Risk) 지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00.0,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58.9,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30.5(최대값 100 기준)

※ 여성고용 규모 및 비중: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85.8만 명(68.0%),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81.6만 명(76.5%),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72.6만 명(85.4%)

- 박수범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 여성고용 규모와 집중도를 고려한 정책대상 선정 ▲ 교육·보건 분야의 AI 활용역량 강화와 직무재설계 ▲ 사무·금융·상담 분야의 직무전환 훈련 및 경력 이동 지원 ▲ 여성집중 직무의 변화와 고용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주요 대응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 후에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 먼저, 수드하 구티 UNDP 아태지역사무소 성평등 팀장이 아태지역 AI 전환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 성평등가족부, 경기북부경찰청, 한국경영자총협회, 네이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여성의 AI 역량 강화와 고용 기회 확대,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실천 과제와 국제협력 및 후속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 협력 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포럼 소개. 끝.

붙임 1. 행사 개요

□ 회의명 : 제1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 포럼

□ 주제 : 여성, 일, 그리고 AI: 아시아·태평양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구축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4:00~17: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 참석자 :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등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14:00	**등록**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14:20	**개회식**	**사회자** : **김소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개회사** :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 **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축사** : **이향숙**(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단체사진**
14:20~14:35	**발표 1. 기회**	**디지털 격차 해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김진하**(아시아개발은행 젠더 전문가)
14:35~14:50	**발표 2. 위험**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 직업별 AI 노출과 도입을 결합한 여성고용 취약성 분석**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50~15:00	**휴식**	커피 브레이크
15:00~16:50	**라운드 테이블**	**1. 지역 프레임 발표 : UNDP의 젠더와 AI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 AI 전환의 주요 쟁점 및 공동 대응방향 논의** **발표자 : 수드하 구티**(UNDP 아태지역사무소 성평등 팀장/선임 지역자문관) **2.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WHAT ARE WE COLLECTIVELY GOING TO DO?) **좌장** : **수드하 구티**(UNDP 아태지역사무소 성평등 팀장/선임 지역자문관) **패널** :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진희**(성평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과장) **신상미**(네이버 리더) **서효진**(킹스칼리지 런던, 글로벌 여성 리더십 연구소 박사) **장윤정**(경기북부경찰청 경감/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 **이민호**(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16:50~17:00	**폐회**	

붙임 2. 포럼 소개

□ 포럼 소개

◦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임.

◦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젠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 회원으로서, 개발협력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개최 주제

◦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강화: 성주류화 및 성평등 이행을 위한 정책 도구 (2025)
◦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적 사회규범 전환 (2024)
◦ 아태지역의 여성·평화·안보: 이행 및 협력 전망 (2023)
◦ 성평등한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한 지역적 논의 (2022)
◦ ICT와 여성의 권한강화 (2021)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젠더와 개발협력 (2020)
◦ 성평등과 온라인 여성폭력: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2019)
◦ 북한개발협력과 젠더적 접근 (2018)
◦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젠더: 지역 및 국가적 관점 (2017)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2016)
◦ 국제개발아젠다로서의 젠더 : 동북아 3국의 Beijing +20 성과 및 SDGs 이행 전략 (2015)
◦ Beijing+20와 Post-2015 체제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회와 과제 (201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향후과제 (2013)
◦ 2012 KWDI 아태지역 여성정책 지식공유 정책개발 토론회 (2012)
◦ ODA의 성 주류화: 노르웨이와 한국의 경험과 과제 (2011)
◦ 개발과 젠더-모범사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효과적 원조 (2010)
◦ The MDG 3: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2009)